

제1절 생활 공간 : 동성마을

1. 울진 매화리 윤광수가옥

윤광수 가옥은 파평 윤씨의 집성촌이었던 윤촌마을(매화리) 초입에 남수산을 뒤로하여 남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1750년(영조 26)경 건립되었고, 1960년경 중수하였다. 이 집은 정면 4칸×측면 4칸 규모의 뜰집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연이어져 □자형을 이루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상부구조는 사랑채와 안채 모두 삼랑가로 대량위에 동자주를 얹어 종도리를 받게 한 간략한 구성이다. 이 가옥은 몇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조·변용되기는 하였으나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쪽마루를 부설한 뜰집형으로 생활의 변화에 따른 한옥의 공간 변용 과정을 살필 수 있어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2. 울진 평해 황씨 해월종택과 해월헌

울진 평해 황씨 해월종택은 황여일(黃汝一)[1556~1622]의 집이다. 처음에는 ‘해월헌(海月軒)’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6월 14일 ‘울진 평해 황씨 해월종택(蔚珍 平海 黃氏 海月宗宅)’으로 변경되었다. 이곳은 정침 1동, 사당 1동, 정자 1동 등 모두 3동의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해월종택의 건물배치는 뒤편의 야산을 등지고 정침, 정자, 사당, 방앗간 등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배치구성은 1993년 복원된 대문간채를 들어서면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정침과 정자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그 뒤에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의 상류주택 특성을 잘 보여준다.

안채는 정면 7칸×측면 6.5칸 규모의 □자형 건물로 홀처마 맞배기와집이며, 전면 양측으로 1칸씩 돌출되어 양날개집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안채의 동쪽에 사랑채가 붙어있는데,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중문을 들어서면 안마당 뒤로 3칸 규모의 대청을 두었다. 대청 좌우에는 안방과 상방을 두었으며, 안방과 상방의 전면에는 익사가 연결되어 있다.

해월헌(海月軒)은 1588년(선조 21) 황여일이 세운 별당이다. 규모는 정면 4칸×측면 1.5칸의 홀처마 팔작기와집으로 전면에는 누마루처럼 꾸민 뒷마루를 두고 난간을 돌렸다. 평면은 가운데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양 측칸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이다. 이 정자는 원래 1588년(선조 21) 기성면 사동리 마약산 기슭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1847년(헌종 13) 후손들이 현 종택 내로 이축하였다. 해월헌 앞쪽에는 ‘해월헌기(海月軒記)’, ‘제해월헌(題海月

軒)‘용청강운(龍淸江韻)’ 등의 현판이 걸려 있다. 해월의 유품으로 보이는 서각·물통·화살·순가락·제기·청동등잔과 용도를 알 수 없는 녹각(鹿角) 3점 등의 유물과 교지 수십 점이 있으며, 『천군기(天君記)』 등의 서적과 한호(韓濩) 글씨라는 병풍 1점이 있는데 낙관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사당은 정자 뒤편에 있으며, 정면 3칸×측면 1.5칸으로 홀처마 맞배기와집이며, 해월 황여일의 신위를 모시고 있어서 ‘불천묘’로 불리고 있다.

황여일은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해월헌(海月軒)·매월헌(梅月軒)이다. 경상도 평해 출신이다. 황세충(黃世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황연(黃璉)이며, 아버지는 유학(幼學) 황응징(黃應澄)이다. 1576년(선조 9)에 진사가 되고 1585년 개종계별시문과(改宗系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88년 검열이 되었는데, 하번사관(下番史官)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1594년 형조정랑이 되고 곧 도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뒤 도원수의 허락을 받고 일시 귀가하여 도원수와 함께 추고(推敲)당하였다. 1598년 사서에 이어 장령이 되고, 이듬해 장악원정을 역임하였다. 1601년 예천군수가 되고 1606년 전적을 역임, 1611년(광해군 3) 길주목사, 1617년 동래진병마첨절제사가 되었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는 『조천록(朝天錄)』과 『해월집(海月集)』 14권 7책이 있다.

제2절 문화 공간 : 누정

울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수많은 누정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누정조」에서는 누정을 누(樓)·정(亭)·당(堂)·대(臺)·각(閣)·헌(軒)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누각과 정자를 총칭하는 누정은 누관(樓觀)이라고도 하며, 대개 높은 언덕이나 돌 혹은 흙으로 쌓아올린 대 위에 세우기 때문에 대각(臺閣) 또는 누대(樓臺)라고도 한다.

따라서 누정은 자연에서 유람과 휴식을 목적으로 가옥 외에 특별히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방이 없이 마루만 있고, 사방이 두루 보이도록 막힘이 없이 탁 트였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건립한 것이 누정의 특징이다. 그러나 누정 중에는 한두 칸 정도의 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누정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서당이나 서재의 기능을 하는 방을 둔 누정도 생겨나게 되었다.

빠어난 경치의 산세를 끼고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울진 지역에는 많은 누정이 분포되어